



권순금 글·김선배 그림 | 104쪽 | 12,000원

분야

어린이(초등) > 어린이문학 > 고전 / 전래동화 / 명작동화

키워드

#한국고전 #초등학교교과서 #고전소설 #홍길동 #서자 #의적 #신출귀몰

1차시 **홍길동은 어떤 인물일까요?**

들어가며

- 책을 읽기 전 ‘홍길동’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다음을 읽고 **홍길동이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길동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가 비록 높은 벼슬에 있지만,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라 글공부해 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차라리 무예와 병법을 익힌다면 써먹을 데가 있을 거야. 아버지와 형님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슬프구나.”
그러고는 뜰에 내려와 검술을 익히고 있었어.

2. 다음 글을 바탕으로 **홍길동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 봅시다.

홍길동은 특재와 관상녀를 바로 죽이면서도, 초란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지라고 생각하여 죽이지 못한다. 또 아무리 초란이 설득해서라지만 유씨와 형 인형은 자신을 죽이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다. 그런데도 형이 고난에 처하자 스스로 형에게 잡혀간다.
또한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친 후에 울도국을 정벌한다.

3. 다음을 참고하여 **홍길동이 인간에 대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빈칸에 써 봅시다.

마침 흥 판서가 달빛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길동이를 보고는 불러서 물었지.
“밤이 깊었는데 왜 안 자고 나와 있느냐?”
“마음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사람이 특히 귀한 존재인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흥 판서는 길동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일부러 꾸짖어 말했다.
“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저는 대감 덕분에 세상에 태어났으며 길러주신 은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니 어찌 저를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인간 (**존중**) 사상, (**평등**) 사상

생각 넓히기

- 다음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해 봅시다.

홍길동은 적서 차별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볼 수 없다. 홍길동은 자신이 서자로서 차별받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을 뿐이다. 지배층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노비들이 자신을 천시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노비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조선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생각은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어머니인 춘섬의 처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는 본인도 첩을 얻었으며 첫째 부인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을 세자로 삼았는데, 이것 또한 적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활동하기

-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를 바탕으로 홍길동이라는 인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2차시 **홍길동은 왜 가출을 했을까요?**

들어가며

- 만약 친구가 가출을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홍길동전>의 내용을 참고하여 홍길동이 가출한 이유에 대해 말해 봅시다.

“옛날 장길산이란 사람도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열세 살에 어머니와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도를 닦은 뒤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쳤습니다. 저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합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곡산댁(초란)이 어머니를 시샘하여 원수같이 여기는 듯하니, 제가 떠나고 나서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홍 판서가 길동에게 물었어.
“왜 아직 안 자고 여기에 있느냐?”
그러자 길동이 엎드려 대답했어.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동안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 더는 이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감께 인사드리고 저는 이만 떠나려 합니다.”

2. 홍길동이 초란을 죽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답을 써 봅시다.

길동이 칼을 한 번 휘두르자 특재가 방바닥에 쓰러졌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지. 길동은 곧바로 술법을 써서 관상 보는 여자도 잡아 와서는 칼로 베어버렸어. 길동은 초란마저 죽이려 했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차마 그러지는 않았어.

⇒

음모를 꾸민 사람은 초란이었지만 길동은 초란을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초란은 아버지가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초란을 죽여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생각 넓히기

- 다음 글을 참고하여 홍길동이 자기가 바라는 바를 홍 판서에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출을 한 이유에 대해 말해 봅시다.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 가운데 ‘노비종묘법’이라는 게 있다. 조선 후기에 시행되었는데, 노비(여종)가 낳은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 춘삼이 낳은 홍길동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된 것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양반이라고 해도 길동은 종의 신분일 수밖에 없었다.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벼슬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

길동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 홍 판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길동이를 타이르며 말했지.
“네가 품은 한을 이제 짐작하겠구나. 오늘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거라.”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홍 판서는 차마 길동이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 다만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었지.

활동하기

- 오늘날 신분 제도는 사라졌지만 현대 사회에는 아직도 부와 지위에 의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현대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말해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3차시 홍길동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나요?

들어가며

- 홍길동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 다음 장면들에 나타나 있는 홍길동의 능력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까옥까옥 하면서 세 번을 울고 가는 거야. 길동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

“까마귀가 밤중에 울고 가니 불길하구나.”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길동은 풀로 허수아비 일곱을 만들더니, 주문을 외우고 혼을 불어넣었어. 그러자 허수아비들이 모두 길동으로 변한 거야. 부하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

여러 날 만에 길동을 실은 수레가 대궐 문 앞에 이르렀어. 이때 길동이 몸을 한번 움직이자 쇠사슬이 끊어지고 수레가 깨져버리는 거야. 길동은 공중으로 올라가 구름에 묻혀 사라져 버렸어.

이튿날 이상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자기 몸이 가죽으로 만든 큰 자루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 간신히 자루에서 나와 보니 똑같이 생긴 자루 세 개가 나무에 걸려 있네? 하나씩 내려서 풀어보니, 처음 떠날 때에 데리고 갔던 부하들이 자기처럼 영문도 모른 채 자루 속에 묶여 있던 거였어.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우리가 헤어지며 문경에서 다시 모이자고 했는데, 왜 이곳에 와 있느냐?”

모두가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니, 그들이 있는 곳은 문경이 아니라 서울의 북악산이었어.

생각 넓히기

- <홍길동전>이 왜 평범한 인간이 아닌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하기

1. 홍길동이 가진 능력 가운데 자신이 갖고 싶은 능력 하나를 고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2. 홍길동이 가진 능력 외에 자신이 가지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왜 갖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4차시 홍길동은 영웅인가요?

들어가며

- 자신이 알고 있는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들은 그 구성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영웅의 일대기 구성’이라고 하는데, <홍길동전>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동전>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영웅	홍길동
혈통	고귀한 혈통의 인물	이조판서 홍 판서의 아들
태생	비정상적인 잉태와 출생	시비 춘섬에게서 서자로 태어남
능력	비범한 지혜와 능력을 지님	남보다 총명하고 도술에 능함
위기	어려서 버림받고 시련을 당함	초란이 자객을 시켜 길동을 죽이려 함
고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위기를 벗어남	자객을 죽이고 살아나 활빈당의 괴수가 됨
위기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힘	나라에서 길동을 잡아들이려 함
결말	싸워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됨	병조판서를 제수받음. 괴물을 물리치고 결혼함. 을도국 왕이 됨

2. 다음 제시된 각각의 내용이 ‘영웅의 일대기 구성’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말해 봅시다.

홍 판서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 하나는 아내인 유씨가 낳은 인형이고, 다른 하나는 여종인 춘섬이 낳은 길동이었지.

홍 판서는 길동이를 낳기 전에 신기한 꿈을 꾸었어. 갑자기 천둥과 벼락이 치고 푸른 용이 수염을 세우고 달려드는 꿈이었지. 홍 판서는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용이 나에게 달려들었으니 반드시 귀한 자식을 얻을 꿈이로다.’

그리고 나서 여종인 춘섬과 하룻밤을 보내고 열 달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생김새와 기운이 남달랐어. 홍 판서는 매우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좀 아쉬웠지.

“저는 진짜 길동입니다. 형님은 의심하지 마시고 저를 묶어 서울로 올려보내십시오.”
인형이 이 말을 듣고는 길동의 왼쪽 다리를 살펴보니 과연 붉은 점이 있었어. 그래서 바로 길동의 팔다리를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 수레에 태웠지. 그러고는 지난번처럼 군사 수십 명을 뽑아 길동이 탄 수레를 에워싸고 서울로 향했어.

병조판서에 임명되자 길동은 대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절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저의 죄가 한없이 무거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평생의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선을 떠나려 하오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말을 마친 길동은 공중으로 몸을 솟구치더니 구름에 싸여 사라져버렸어. 임금은 이를 보고 신기해하며 중얼거렸지.
“길동의 재주는 참으로 신기하구나. 이제 조선을 떠난다고 했으니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으리라.”
임금은 홍길동의 죄를 용서한다는 글을 팔도에 보내고, 그 뒤로 길동을 잡는 일을 멈추었어.

생각 넓히기

- <유충렬전>과 <홍길동전>이 ‘영웅의 일대기 구성’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유충렬전> 줄거리
명나라 영종 때 벼슬을 하고 있던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었다. 이를 슬퍼하다가 산에서 기도를 드리고 신기한 태몽을 꾸 뒤 귀한 아들을 얻어 충렬이라는 이름을 짓고 키운다.
이때 나라의 신하들 가운데 임금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은 정한담·최일귀 등이 옥관도사의 도움을 받아 유심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귀양을 보내고, 유심의 집에 불을 놓아 충렬과 그의 어머니도 죽이려 한다.
그러나 충렬은 하늘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많은 고난을 겪은 뒤 예전에 높은 벼슬을 지냈던 강희주를 만나 그의 사위가 된다. 강희주는 유심을 구하려고 임금께 글을 올렸으나 정한담이 이를 알고 강희주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또 귀양을 보내버린다. 이 일로 강희주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충렬은 한 절에 이르러 노승을 만나 무예를 배우며 때를 기다린다.
이때 남쪽과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정한담이 군사를 이끌어 나가 남쪽 오랑캐에게 항복한 뒤 남쪽 오랑캐의 장군이 되어 임금을 공격한다. 정한담에게 여러 번 패한 임금이 항복하려 할 즈음, 충렬이 등장하여 남쪽 오랑캐의 장군인 정문걸을 죽이고 임금을 구출한다.
충렬은 홀로 반란군을 쳐부수고 정한담을 사로잡는다. 또 호왕에게 잡혀간 황후·태후·태자를 구출했으며,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아버지 유심과 장인 강희주를 구해 돌아온다. 또한 이별했던 어머니와 아내를 찾고, 정한담 무리를 물리친 뒤 높은 벼슬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활동하기

- 홍길동 같은 신비한 능력은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마땅히 ‘영웅’이라 불릴 만한 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왜 ‘영웅’이라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해 봅시다.

5차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나요?

들어가며

-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긍정적인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로 나누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다음을 참고하여 '홍 판서'는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홍 판서는 길동의 말을 듣고 가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길동이를 위로하면 자신에게 기대는 마음이 커질까 봐 오히려 더 크게 꾸짖었어.

“세상에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홍 판서가 엄하게 꾸짖자 길동은 더는 말을 못 하고 옆드려 눈물만 흘렸어.



현실에 순응, 권위적, 완고함, 기득권층, 당시 사회적 관념과 질서를 지킴

2. 다음을 참고하여 '춘섬'은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너처럼 태어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면 될 것인데, 너는 어째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한집에 살아도 서로 떨어져 있어 늘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떠나버리면 내가 어찌 너를 잊고 지낼 수 있겠느냐? 하루빨리 돌아오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해 체념, 자식에 대한 정이 깊음, 체념적, 순종적, 전형적인 한국 여인

3. 다음을 참고하여 '초란'은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초란은 춘섬이 길동을 낳아 홍 판서의 사랑을 받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늘 길동이를 없애버리고 싶었지. 그러다가 진짜 길동이를 죽일 계획을 꾸미려고 무당을 불러 말했어.

“내가 이 집에서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길동이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 만일 내 소원을 이루어주면 크게 보답하겠다.”



남의 목숨을 해치는 인물, 이기적, 질투 시기심이 강함, 적극적

4. 다음을 참고하여 ‘특재’는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초란이 무당과 짜고 관상 보는 여자와 함께 꾸민 짓이니 내 손에 죽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흥 판서도 이미 허락한 일이니 깨끗하게 내 손에 죽어라.”

말을 마친 특재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 길동은 요술을 부려 특재의 칼을 빼앗아 들고는 큰 소리로 꾸짖었지.

“네 놈이 돈에 눈이 멀어 사람까지 죽이려 하는구나. 너같이 나쁜 놈은 내 손으로 죽여 없애야겠다.”



책임을 전가하는 교활한 인물

생각 넓히기

- 흥길동은 임금의 명으로 자신을 잡으려 하는 형 ‘인형’에게 스스로 잡힙니다. 이것으로 보아 흥길동은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길동아, 내가 집을 나간 뒤로 아버지 병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적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히느냐? 임금께서 너를 반드시 잡아들이라 하시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바로 서울로 올라가 임금의 명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길동은 인형의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

“천한 동생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아버지와 형님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서 저를 묶어 서울로 올려보내십시오.”



효성이 지극하고 가문을 중시하는 인물

활동하기

- 자신이 흥길동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흥길동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6차시 홍길동의 행동은 정당한 것인가요?

들어가며

- 비록 악법(좋은 법이 아닌 법)일지라도 법은 지켜져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홍길동이 다음과 같이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스님들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길동은 일부러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었지.
“어찌 음식을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너희가 나를 얹잡아 보는 것이로구나!”
길동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부하들에게 스님들을 모두 묶으라고 했어. 스님들은 몸이 묶인 채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지. 그때 갑자기 도적 수백 명이 절 안으로 달려들었어. 그러고는 절 안의 재물을 다 가져가 버렸지. 스님들은 묶여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 그저 입으로만 소리를 지를 뿐이었지.

2. 다음 제시된 내용으로 볼 때 홍길동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 뒤로 길동은 자기 무리를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활빈당’이라 부르며 전국을 누비고 다녔어. 각 고을 수령들이 옳지 못하게 모은 재물이 있으면 빼앗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었지. 백성의 재물이나 나라의 재산은 절대 빼앗지 않으니, 모든 부하가 그의 뜻을 잘 따랐어.

3. 홍길동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함경 감사가 나쁜 짓을 하며 백성들을 빨아먹는다고 한다.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너희는 나의 말대로 움직여라.”
길동은 부하들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각자 따로 움직여서 아무 날 밤에 아무 곳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러고는 그날 밤에 성의 남문 밖에 불을 질렀지. 함경 감사는 깜짝 놀라 불을 끄라고 지시했고, 백성들은 모두 나와 불을 끄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때 길동의 무리 수백 명이 순식간에 성안으로 쳐들어와 창고에 있던 돈과 곡식, 무기 등을 훔쳐 복문으로 달아났어.

4. 홍길동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말해 봅시다.

이때부터 여덟 홍길동이 조선 팔도에 하나씩 흩어져서 각각 부하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다녔어. 누가 진짜 홍길동인지 알 수가 없었지. 여덟 홍길동은 바람과 비를 불러오는 술법을 부리기도 하고, 하룻밤 사이에 관가 창고에 쌓인 곡식을 훔쳐 가기도 하고, 서울로 올려보내는 물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기도 했어.

생각 넓히기

● 다음 글을 참고하여 ‘로빈 후드’와 ‘홍길동’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로빈 후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의적이며, 노르만족에게서 영국을 구하고자 한 민족 영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믿음직한 동료 리틀 존과 함께 셔우드 숲에 살면서 부자들을 습격해 강제로 빼앗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침내 탐관오리인 노팅엄 감독관을 살해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로빈 후드가 죽인 사람들은 사악한 관리였으므로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로빈 후드는 사자왕 리처드를 만나 왕위를 역지로 빼앗은 동생 조를 몰아낸다. 왕을 위한 공을 인정받아 왕궁에서도 잠시 살았지만 결국 숲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약 20년 동안 숲에서 살다가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활동하기

● 다음 글을 참고하여 홍길동이 도적인지 아니면 의적인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도적(盜賊)은 제 것이 아닌 것을 훔치거나 남을 못살게 굴고 그 생명을 빼앗는 도둑을 말한다. 이에 비해 의적(義賊)은 부당하게 재산을 모은 탐관오리나 부자, 귀족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의로운 도둑을 말한다.

7차시 홍길동은 왜 울도국을 세웠나요?

들어가며

-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홍길동이 ‘제도’에 머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그대로 몸을 솟구쳐 남경(중국 난징)으로 향해 가던 길동은 한곳에 다다랐어. 바로 ‘울도국’이었지. 둘러보니 산천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만했어.

길동은 이어서 남경을 구경한 뒤, 제도라는 섬에 들러 산천을 둘러보고 인심도 살폈어.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돌레가 칠백 리쯤 되고, 기름진 논의 가득해 사람 살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았지.

‘내 이미 조선을 떠났으니 이곳에 와서 숨어 지내며 나중 일을 준비해야겠다.’

2. 홍길동이 울도국을 쳐들어간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제도의 남쪽에 자리한 울도국은 기름진 땅이 수천 리나 되는 살기 좋은 곳이었어. 길동은 늘 울도국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 사람들을 불러 뜻을 전했다.

“내가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마음과 힘을 다하라.”

길동은 곧 군사를 일으켜 울도국을 쳐들어갔어. 군사 오만 명을 거느리고 맨 앞에 서서 군사들을 지휘하며 나아갔지.

울도국 철봉 지역을 지키던 장군이 난데없이 군사가 쳐들어오자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를 올렸어. 그러고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와 맞서 싸웠지. 하지만 길동이 이끄는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

생각 넓히기

- 다음의 <허생전>에 등장하는 ‘빈 섬’과 <홍길동전>의 ‘울도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허생은 몸소 이천 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도둑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쏘아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서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여 집이 넘는 일본에 딸린 지역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나누어 주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라고 말하고,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유하게 한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살려 하였다.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얕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손가락을 쥐게 하고,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말했다.

“갈 수 없으면 오는 사람도 없으려다.”

또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말했다.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쓸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말했다.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지.”

활동하기

-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 지도층과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마음을 갖고 노력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8차시 홍길동은 사회를 비판했나요?

들어가며

-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을 채우며 <홍길동전>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홍길동전>은 조선 인조 때를 배경으로 (적서 차별)이라는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당대의 억압받는 (서민)들의 한을 대변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았다.

홍 판서의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온갖 차별과 천대를 받는다. 이에 길동은 집을 나가 산적의 두목이 되어 (활빈당)이라는 이름으로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전국을 누빈다. 조정에서는 그를 잡으려 하지만 끝내 잡지 못하고, 그에게 (병조판서)의 직책을 내린다. 그러나 홍길동은 결국 그 자리를 버리고 울도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정치를 실현한다.

2. 홍길동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 말에는 무엇이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는지 말해 봅시다.

길동은 하루는 어머니 방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가 끝이 없지만, 천한 몸으로 태어난 까닭에 마음에 쌓인 한이 깊습니다. 이렇게 천한 대접을 받으며 살기보다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부디 평안히 지내십시오.”

3. 홍길동이 다음과 같이 행동한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임금은 팔도에 공문을 내려 홍길동을 빨리 잡아들이라고 명했어. 하지만 길동은 여유롭게 이곳저곳을 드나들었지. 서울 큰길가에 수레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각 고을에 도착 날짜를 미리 알린 뒤 가마를 타고 들어가기도 했어. 암행어사로 변장해 나쁜 관리들을 처벌한 뒤 임금에게 보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

4. 홍길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제 아버지가 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제가 어찌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천하게 태어난 까닭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스러워 집을 나와 도적의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게 모은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을 도왔을 뿐, 죄 없는 사람을 해치거나 사사로이 욕심을 채운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십 년이 지나면 조선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 하니, 부디 임금께서는 근심하지 마시고 저를 잡으라는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생각 넓히기

● 홍길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나 차별받은 개인적 사정 때문에 가출을 결심했다. 하지만 자신이 당한 피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홍길동은 조선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홍길동은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관리들을 혼내준다. 나라에서 좋은 인재를 제대로 임명하지 못해 관리들이 부패한 점을 고치고자 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기는 힘들지만, 홍길동의 행동은 조선 사회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활동하기

●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다음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자신은 어떻게 행동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있을 때, 그 상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쪽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인데 처음부터 불공정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100미터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다른 선수는 50미터 앞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선수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다.